

2023 공익법률센터 농본 연속토론회

산업단지 및 산업폐기물 매립장 충남 지역 농촌 피해 현안 토론회

주최 공익법률센터 농본, 충남환경운동연합 주관 공익법률센터 농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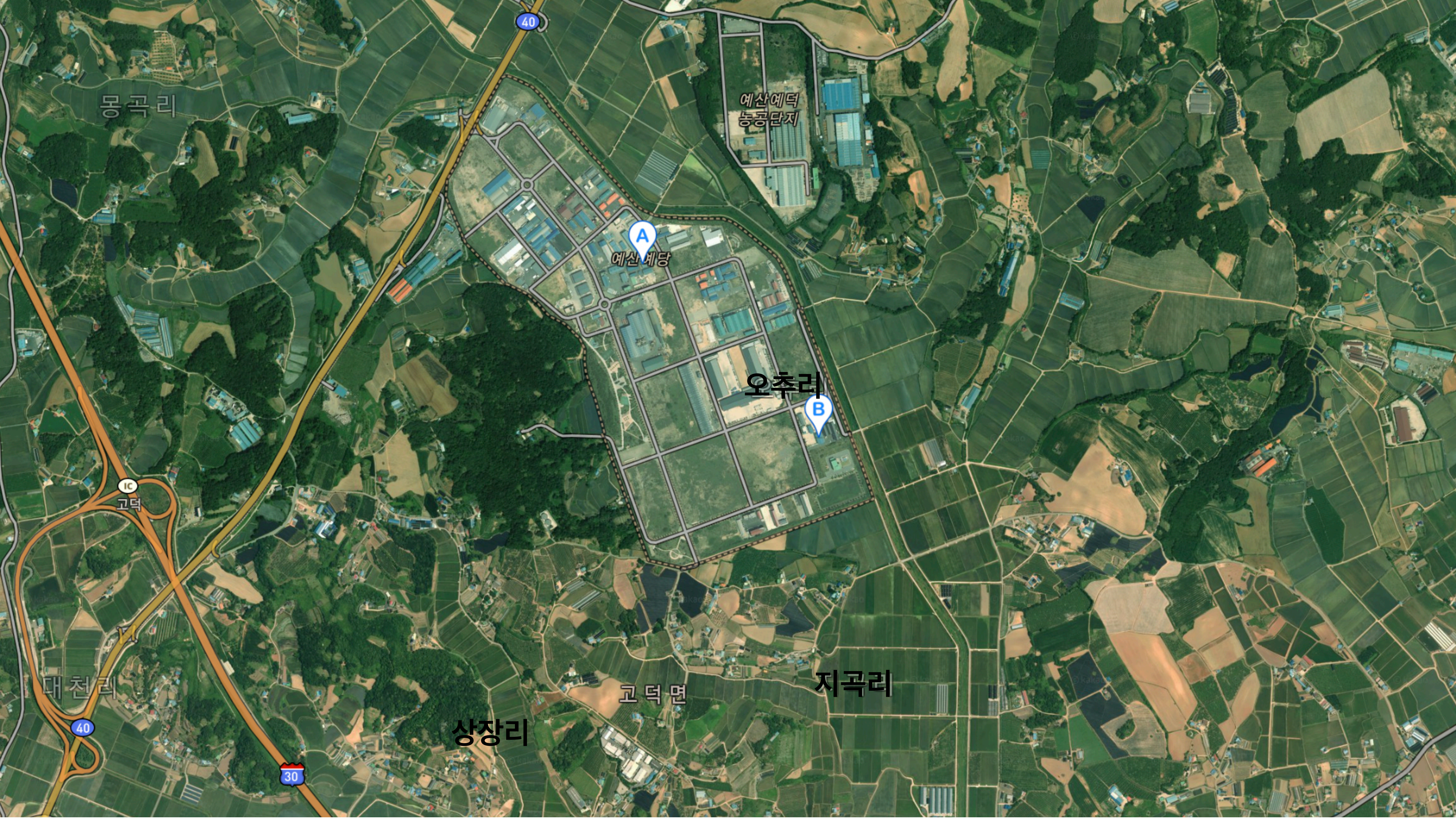
<실태 증언 1>

예산 예당일반산업단지,

예당2일반산업단지

실태 증언

예당2산단 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 이근식



몽곡리

예산예덕
농공단지

A
예산계당

오추리

B

IC
고덕

대천리

고덕면

지곡리

상장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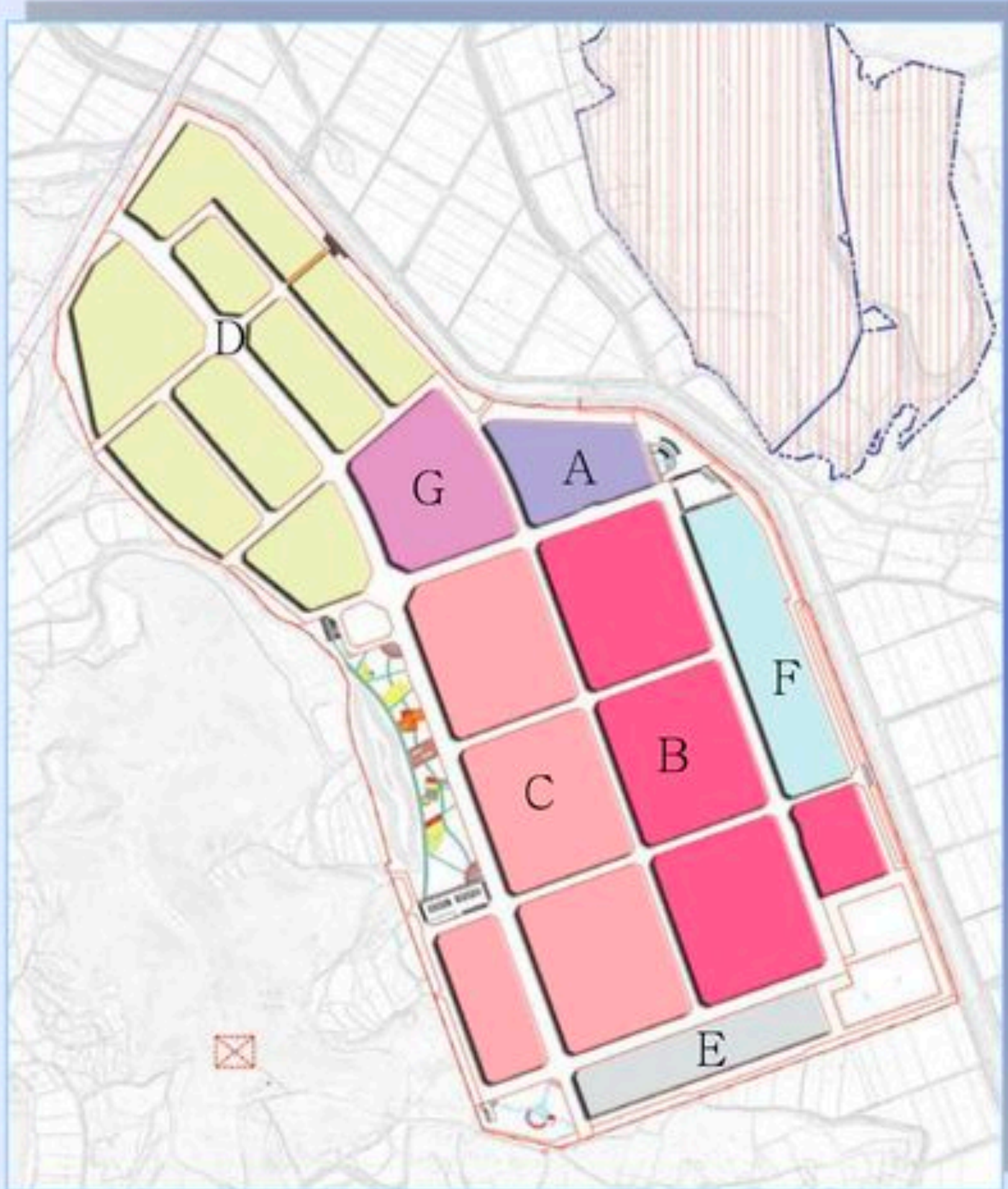
40

40

30

자료 : 예당일반산업단지 분양안내서, 예당산업단지개발(주)

● 업종별 배치도



구분	유치업종	부지면적	
		m ²	평
A	섬유제품제조업	27,982	8,464
B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158,569	47,967
C	1차금속제조업	167,098	50,547
D	금속가공제품제조업	191,121	57,814
E	전기장비제조업	29,495	8,922
F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47,672	14,421
G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42,836	12,958
	합계	664,773	201,093



삼지금속공업(주)

3894 7770









예당제2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신호인더스트리를 비롯한 개별 공장



<실태 증언 2>

예산 조곡그린컴플렉스 및 산업폐기물 매립장 실태 증언

조곡그린컴플렉스 반대대책위원장 조동진

<실태 증언 3>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및 지정폐기물 매립장 실태 증언

천안성남면반대대책위 사무국장 류형선

<실태 증언 4>

논산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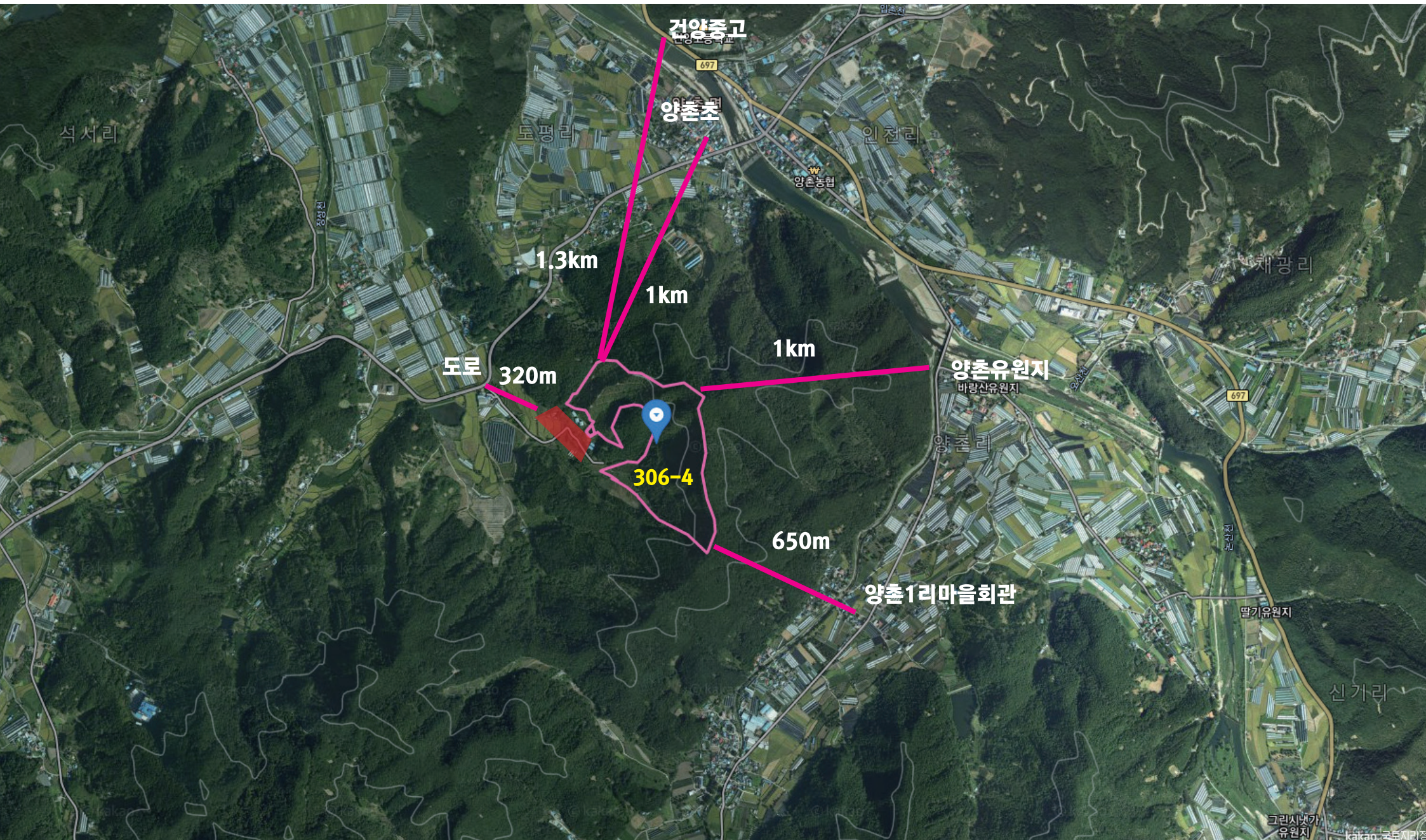
산업단지 실태 증언

논산 양촌면 주민 배용하

실익은 없고 위험은 넘친다 논산시민은 평화도시를 원한다



비인도적대량살상무기생산업체 KDI 논산유치반대시민대책위원회



건양중고

양촌초

인천리

1.3km

1km

1km

도로

320m

양촌유원지

바랑신유원지

306-4

650m

양촌1리마을회관

말기유원지

신가리

크린시냇가 유원지

1. KDI란 어떤 회사인가?

- 한화 계열사로 있다가
2020년에 독립매각되어 회사 설립.



사고 이력이 말해주는 회사

- 대전 18년 5월 5명 사망, 19년 3월 3명 사망.
- 보은-97, 98년. 폭발사고
01년. 화재사고
03년. 탄두조립중 폭발사고로 2명 사망 4명 다침. 150평 규모의 탄두조립공실 건물 내부가 완전히 부서지고 옹벽까지 무너짐.
22년 1월 26일 창고에서 질산암모늄 폭발사고로 2층 건물 날아감. 주민들 구미공장 이전 막기위해 대책위 구성.
- 논산에서 하려는 일 : 대전공장 조립 라인의 확장/ 보은 공장의 이전 탄두 양산 / 완성체 조립 / 보은으로 옮기지 못한 구미공장 이전.



치솟고 지붕 날
스공장 폭발 사



2. 어떻게 양촌면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 2021년-2022년 전임 시장 때에 시에 제안했다고 거절 당함.
- 2022년 백성현 논산시장 당선 후에 다시 로비
 - 백성현 시장이 결정(6월 당선-9월 일반산업단지 MOU)
 - 10월에 8만평 부지 매입.
 - 3월 3일 80평 규모 공장 인허가신청.
 - 3월 24일 착공식 (84평 공장 인허가 신속 처리)

3. 이후에 예상되는 일들

- 1) 심각한 토양 수질 대기오염 가능성
- 2) 일상적 감시와 통제가 불가능
- 3) 주민의 이익은 적은 반면 화재, 폭발, 환경 오염 등 위험성은 넘침
- 4) 이동 경로에는 초등학교와 대규모 주거단지가 있다. 유사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누구도 책임질 수 없음

확산탄이란 무엇인가?

집속탄=분산탄=Cluster Bomb

확산탄의 파괴력, 사용례

확산탄 모탄 1발에는 40~650개의 자탄이 탑재. 종류에 따라 **축구장 1개~30여 개 넓이까지 초토화**

KDI 생산 확산탄은 CBU-58(자탄 650개), MK-20(자탄 247개)

-1960~70년대 미국은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에 3억 5천만 발의 확산탄 사용

-1991년, 이라크와 쿠웨이트에서는 3천만발 이상의 이중목적 고풍탄 사용

-2001년, 아프가니스탄과 2003년 이라크에서도 대량의 확산탄이 사용

-2006년 이스라엘-레바논 헤즈볼라 간 전투시 400만 발의 확산탄(자탄)을 사용하여 408여 명의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켰고 그중 115명이 18세 이하. 이후에도 10여명의 민간인 사망. 불발률 40%(유엔 추산)

-2022년, 우크라이나에서 확산탄으로 689명 사망. 대부분 민간인(CMC연례보고서)



확산탄금지협약

확산탄 피해자들과 이를 돕는 시민사회 또는 국가의 대응 (확산탄금지협약이 체결된 배경)

확산탄 금지 협약(CCM)은 확산탄의 사용과 보유 및 제조를 전면 금지하는 UN 국제 협약.

-2006년 이스라엘의 확산탄 사용을 계기로 비판 여론 확산

-2007년 2월 46개국 사용, 제조, 보유 및 이동을 금지하는 오슬로선언

-2008년 12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체결

-2010년 8월 발효. -2022. 8. 25현재 123국 가입

-2020년 체코, 네델란드, 슬로바키아, 연구 및 훈련 목적 확산탄 폐기

-2021년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등 37개국이 '확산탄금지협약'에 따라 비축 확산탄을 전량 폐기. 협약 체결 과정 : 국제NGO의 문제제기+평화지향 중견국과의 협력

확산탄은 방어무기가 아니라 공격을 위한 불법 무기

- 확산탄은 타국 영토를 침공하기 위한 공세무기로 개발. 대북선제공격을 위해 확산탄을 생산, 비축, 사용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평화통일을 규정한 **우리나라의 헌법 4조와 5조 1항에 위배**. 선제공격과 전쟁을 불법화한 유엔헌장 2조 4항을 위배하는 불법.
- 확산탄은 국제적으로 금지된 비인도적 불법 무기
- 민간인과 군인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살상하는 확산탄은 국제인도법(전쟁법) 위반
- “확산탄 사용 국가는 확산탄금지협약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확산탄에 의해 국제관습법이나 국제 인도법을 위반한 때에는 국가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다(한국국방연구원의 국방 획득연구센터 하광룡, 박지원 연구원, 「확산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우리의 정책방향」, 『국방 논단 제1434호』, 2012.10.29.).
- 불법적 대량살상무기 팔아 돈 벌겠다는 발상은 비도덕적 경제적 효과도 한계
-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은 2007년부터 13년째 한화를 투자 금지대상
- 프랑스 연기금 FRR, 네덜란드 공무원연금, 덴마크 공적연금 등도 한화그룹 전체에 대한 투자를 금지. -2018년 네델란드 금융회사들과 룩셈부르크 연금펀드 등도 한화의 계열사인 한화 솔루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생명에 대한 투자를 막았고, 네델란드는 한화와의 태양광 사업 추진을 중단.

북은 핵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확산탄이라도 갖고 있어야 하지 않는가?

1. 확산탄 없어도 전쟁 수행 지장 없어(세계군사력순위 한국:6위, 북한:28위)

남한은 이미 핵전력을 포함한 북한 군사력의 위협과 도발, 침공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하고도 넘쳐나는 전력을 보유.(미국이 막고 중국도 막고)

대책위 소속단체(현) :

논산시농민회 /논산민주청년회 /민예총논산지부/논산시여성농민회/

민주노총논산지회/한살림논산지부/진보당논산시위원회/

논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토론 1>

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의 문제점, 피해, 대안

공익법률센터 농본 장정우

<토론 2>

충남 내 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관련 피해실태와 충남도에 대한 요구사항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미선